고성 옥천사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인기몰이'

7월 22~23일 개최…15가족, 40여 명 참여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름휴가와 사찰순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템플스테이가 고성 옥천사에서 열렸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는 7월 22~23일 1박 2일동안 가족들과 여름휴가도 즐기고 사찰체험도 할 수 있는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15가족 40명이 참가한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의 지도 아래 △가족들과 손잡고 숲길을 산책하는 걷기명상 △타종 체험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로 엄마 아빠와 함께 비빔밥 만들기 △오순도순 둘러앉아 108염주 만들기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삼배 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히 마가 스님의 어머니 사랑을 담은 영화 '불효자' 시청에 이은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영화 '불효자' 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 유명사찰을 순례하며 못 다한 효도를 다하는 마가 스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템플스테이에서는 8분짜리 버전이 상영됐다.

영화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가 스님의 모습을 따라 참가한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부모님들의 발을 닦아드리자 한순간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태극기 그리기 체험행사' 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마가 스님은 "옥천사는 임진왜란때 왜병에 맞서 싸우던 승병의 본거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 독립군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백초월 스님은 만해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애국지사 중 한 분"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투옥과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4년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송동명 군(대구 성동초등학교 6학년)은 "백초월 스님은 '태극기 시' 를 직접 지을 정도로 태극기사랑이 남달랐던 분이었다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며 "특히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방루에서 태극기 그리기는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한 허명욱 씨(회사원)는 "가족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사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에그 깨뜨림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 , '칠월칠석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와 '불면증 · 다이어트 · 스트레스 · 아토피 · 치유캠프'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고성 옥천사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에 참여한 가족들이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휴가, 사찰순례 동시 체험
태극기 그리기로 애국심 고취
부모님 세족식으로 효심 고양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어린이가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사부대중, 전북불교 미래를 상상하다

전북불교미래본, 7월 23일
제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의
'내가 그리는 전북불교미래'
주제로 사부대중 50명 논의



전북불교미래본부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내가 그리는 미래 전북불교' 라는 주제로 제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사부대중이 모여 전북불교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불교미래본부 사부대중 원탁회의(의장 도법, 금산사 회주)는 '내가 그리는 미래 전북불교' 라는 주제로 제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7월 23일 금산사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과 부주지 원혜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과 망해사 주지 인담 스님 등 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유지원 대불련총동문회 전북지부장, 안귀옥 김제불교회관장, 임호연 김제불교회관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에서 주최하는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망해사 주지 인담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및 동참자의 약속, 석가모니불 정근, 격려의 말씀, 축하의 말씀, 의장스님 말씀에 이어 토론발제 모둠별 주제토론과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발제는 지난 5차 원탁회의에서 발표됐던 이명호 박사(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의 '전북불교 미래예측' 발표영상을 시청한 후 정웅기 전북불교미래본부 연구소장의 요약발표, 이정호 전북불교미래본부 정책위원의 전북생명평화포럼 경과보고, 강만곤 사무국장의 전북불교 미래본부 사업계획 보고, 연등축제 평가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모둠별 주제토론과 토론 결과 발표 및 전체 토론이 있었다.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흥복사 주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회의는 미래 전북불교에서 주춧돌이 되고 씨앗이 되어 피어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전북불교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원탁회의에 동참해오지는 못했지만 진행과정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다"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전북불교 미래에 대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월주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원탁회의를 처음 제안하고 진행해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특히 연등축제에서의 성과는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는 생각이다. 소신껏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토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기 전북불교미래본부 연구소장은 전북불교미래에 대한 영상 요약발표에서 "현대사회가 맞고 있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노령화는 20년 후에 불교는 소멸에 가까운 군소종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호 미래본부 정책위원은 전북생명평화포럼 경과보고를 통해 사업배경과 취지, 목적, 진행경과 및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 불교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곤 미래본부 사무국장은 전북불교 미래본부 사업계획으로 실천불교, 생활불교, 열린불교라는 범주와 실행영역별 내용, 조직운영의 대강과 연등축제에 대한 평가자료를 통한 변화과 희망의 경험을 보고했다.

이어 모둠토의와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다음 7차 사부대중원탁회의는 12월 16일 '소임자 선출제도' 에 대한 주제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성당 도견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

해인사, 7월 21일 봉행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금성당 도견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해인사는 7월 21일 대적광전에서 '도견 대종사 추모다례재' 를 봉행하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대표 혜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성당 도견 대종사께서는 평생을 수도와 정진, 그리고 불법을 보호하는 일에 온몸을 헌신해 오신 우리 불교계의 큰 버팀목"이라고 회고하며 "우리 지월문도들은 어른스님의 크신 원력과 가르침에 누가되지 않도록 그 뜻을 조심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참석해주신 대중스님들과 은사스님 다례를 허락해주신 방장스님과 사중 어른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대종사의 추모다례재를 맞아 대중의 모은 뜻을 섭수해 내세에는 꼭 극락왕생하시고 다시 돌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성당 도견 대종사는 1925년 강화도 화전면에서 태어나 1944년 19세에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1911~73)을 만나 출가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을 배우고 해인사에서 3년 결사를 시작했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결사를 중단했다. 범어사 3년 결사를 비롯해 선방 시절 해인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980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대흥사 조실,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원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05년 5월 대종사 법계(法階)를 품수했다. 2013년 해인사 극락전에서 법랍70세 세납 89세로 입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도견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영전에 헌향하고 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세종평진원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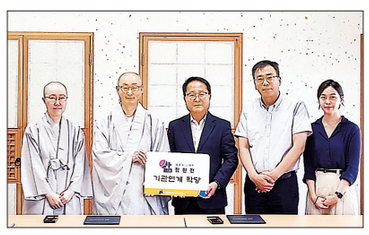
7월 21일 협약식…양 기관 교류 협력 약속

세종신도시 포교를 위해 설립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지역 교육 진흥을 위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손잡았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 이하 체험관)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남궁영, 이하 평진원)은 7월 21일 기관연계 학당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험관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체험' , '마음을 그리는 명상' 강좌 등은 평진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강좌 이수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의 명예학위 학점으로 연계된다.

체험관장 원묵 스님은 "세종 시민 교육의 중심이 되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강좌를 개설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에 개설하는 2개 과정 외에도 세종 시민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영 평진원 원장은 "세종전통체험문화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여 세종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학습 수요를 만족할 기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변 연계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 대관에도 적극 체험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쪽방촌 어르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자비신행회 등 여름 물품 전달

무더운 여름 쪽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여름 선물이 전달됐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도계스님(소원정사 주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회장 김대원)는 7월 24일 광주의 대표적 쪽방촌 지역인 대인동, 계림동 일대 100세대에 '쪽방촌 어르신들의 시원한 생수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부터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음식 나누기 행사를 1년간 진행했던 도계 스님의 발원으로, 9월까지 10주 동안 생수 500ml 생수 20병과 즉석식품을 지원하고, 영양제(오메가3) 3개월분과 계란 10구 등이 함께 전달됐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원 신도회장이 선풍기 100대(싯가 600만원)을 더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전달식에서 도계 스님은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광주 동구 쪽방촌에 계신 130여 분들에게 1년간 공양을 대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작은 공간에서 어려운 여름나기를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전달식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00대의 선풍기를 기증한 김대원 회장도 "평소에 존경하던 도계 스님이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선풍기를 준비하게 됐다" 며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산 미타정사, '자비의 쌀' 2200kg 전달

7월 26일 상하북종합복지관에 매년 1만kg 불우이웃에 전해

양산 미타정사(주지 여해)가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하는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영관)에 자비의 쌀 2200kg을 전달했다.

미타정사 주지 여해 스님은 "이날 전달된 쌀은 미타정사에서 매달 봉행하는 초하루 기도와 방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액 기부된 금액으로 구입한 쌀 1000kg과 백중기도에 영가의 이름으로 공양한 공양미 1000kg,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액 기부된 금액으로 구입한 쌀 2000kg과 불자들이 불전에 공양 올린 공양미 200kg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타정사 여해 스님은 평소 불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밭과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복밭을 가꾸어 달라고 강조해왔다.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은 "매년 약 1만kg 정도의 백미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신도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신도들이 모아주신 정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불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환 신도회장과 최재연 총무는 "큰 금액이 아닌 1만원정도의 보시금으로 청정하게 사용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불자들이 작은 금액을 보시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부담없이 자비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미타정사는 오는 10월과 11월경에는 태국과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의약품과 전동휠체어를 나눔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